



지난해 4관왕을 달성했던 수피아여중이 21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올해 첫 대회 제60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에서 여중부 우승을 차지했다.(사진 왼쪽) 순천팔마중과 순천제일고는 21일 충북 단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춘계전국중고배구연맹전에서 남중부와 남고부 동반 우승을 거뒀다.



이날이 처음이다. 주전 세터가 연습경기에서 부상으로 이탈, 완전한 전력이 아니었던 순천팔마중은 2학년 송성하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시즌 첫 대회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순천팔마중은 예선에서 문일중에 0-2(22-25 19-25)로 패한 뒤 경북사대부설중에 2-0(25-10 25-17), 함안중에 2-0(25-15 25-18)으로 승리했다. 8강에서 태릉중에 2-0(25-21 25-19), 20일 준결승에서 대연중에 2-0(25-16 25-15)으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이슬일(3년)이 최우수선수상, 송성하가 세터상, 김민제(3년)가 공격상, 김진형(3년)이 우수수비상을 받았고 김진범 코치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진범 코치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어느 정도 욕심이 있었는데 주전 세터가 아팠고, 예선에서 져던 문일중을 결승에서 만나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선수들이 정말 잘 뛰어주면서 결승에서 예선 패배를 설욕하고 우승했다”고 밝혔다. 김 코치는 “학교

광주 농구·전남 배구 우승행진 시동

춘계농구 수피아여중 우승·수피아여고 오늘 결승

춘계배구 순천팔마중·순천제일고 동반 우승 쾌거

광주 여자 중·고 농구와 전남 남자 중·고 배구팀이 2023시즌 우승 행진에 시동을 걸었다. 제60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과 2023 춘계 전국중고배구연맹전 우승을 휩쓸며 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수피아여중은 21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제60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여중부 결승에서 온양여중을 64-46(19-9 17-6 12-12 16-19)으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지난해 2022연맹회장기 전국중고농구대회,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77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2022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우승하며 4관왕을 달성했던 수피아여중은 올해도 첫 대회부터 정상에 오르는 실력을 과시했다.

지난해 주축 멤버였던 이가현 등이 졸업

한 수피아여중은 올해 3학년이 된 임연서와 김사랑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봉철고 지난해 소년체전 은메달을 땀던 방립초 출신 김가운, 송지연 등 신입생들이 합류하면서 새로운 전력을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무릎 수술로 팀을 잠시 떠나 재활에 매진했던 김사랑의 합류가 큰 보탬이 됐다.

수피아여중은 동주여중을 87-63, 선일여중을 81-57, 온양여중을 57-53으로 꺾은 뒤 준결승에서 봉의중을 92-63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예선에서 힘겹게 이겼던 온양여중을 결승에서 다시 만난 수피아여중은 1쿼터부터 몰아세우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고 18점차 대승을 거뒀다.

임연서가 대회 최우수선수상과 득점상을 받았고 윤새나 감독과 이선영 코치가 지도

자상을 받았다.

이선영 코치는 “올 초에 부상자가 많아서 걱정이 컸는데 선수들이 경기를 잘 풀어가면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해 4관왕을 했는데 올해는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소년체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피아여중은 5월 연맹회장기에 출전한 뒤 소년체전에 나설 예정이다.

수피아여고는 21일 여고부 준결승에서 온양여고를 82-76으로 제압, 22일 분당경영고를 상대로 우승에 도전한다.

21일 충북 단양국민체육센터에서 막을 내린 2023 춘계 전국 중고배구연맹전에서는 순천팔마중과 순천제일고가 나란히 남중·남고부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두 학교의 동반 우승은 팀 창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순천팔마중은 결승에서 문일중을 상대로 2-1(25-23 25-20 15-11)로 승리,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순천팔마중의 전국대회 우승은 2021년 CBS배 이후 2년 만이며 춘계대회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전 세터가 연습경기에서 부상으로 이탈, 완전한 전력이 아니었던 순천팔마중은 2학년 송성하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시즌 첫 대회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순천팔마중은 예선에서 문일중에 0-2(22-25 19-25)로 패한 뒤 경북사대부설중에 2-0(25-10 25-17), 함안중에 2-0(25-15 25-18)으로 승리했다. 8강에서 태릉중에 2-0(25-21 25-19), 20일 준결승에서 대연중에 2-0(25-16 25-15)으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이슬일(3년)이 최우수선수상, 송성하가 세터상, 김민제(3년)가 공격상, 김진형(3년)이 우수수비상을 받았고 김진범 코치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진범 코치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어느 정도 욕심이 있었는데 주전 세터가 아팠고, 예선에서 져던 문일중을 결승에서 만나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선수들이 정말 잘 뛰어주면서 결승에서 예선 패배를 설욕하고 우승했다”고 밝혔다. 김 코치는 “학교

에서 지원을 잘 해주신다. 교장선생님과 박정환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5월 소년체전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팔마고는 남고부 결승에서 진주동명고를 3-1(25-16 25-19 22-25 25-22)로 제압하고 우승,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예선에서 영성고에 3-0(25-17 25-20 25-20)으로 승리한 뒤 남성고에 1-3(23-25 25-17 22-25 17-25) 일격을 당했으나 육천고를 3-1(25-21 24-26 25-22 25-22)로 꺾었다. 준결승에서는 수성고를 3-1(25-17 25-23 22-25 25-22)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최보민(3년)이 최우수선수로 선정됐고 배준술(2년)이 세터상, 정승윤(3년)이 우수공격상, 조현준(3년)이 리베로 상을 받았다. 김남중 감독은 지도자상을 받았다.

김남중 감독은 “예선에서 패했던 남성고가 8강에서 떨어져 결승을 쉽게 풀어간 것 같다. 중간에 방심해서 1세트를 내줬는데 선수들이 스스로 경기를 잘 풀어가면서 우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 시즌도 전력이 괜찮다. 특히 선수들끼리 서로 믿고 소통하면서 자발적으로 훈련하는 등 분위기가 좋다”고 밝혔다.

순천제일고는 오는 5월 충북 제전에서 열리는 제78회 전국중별배구선수권대회에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한다. /최진화 기자

‘5선발 굳히기’ KIA 윤영철 4⅔이닝 무실점 호투

LG에 2-6 역전패

KIA 타이거즈 윤영철(19)이 고졸신인답지 않는 안정감 있는 투구로 ‘5선발 굳히기’에 나섰다.

윤영철은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3 KBO 리그 LG와의 시범경기에서 4⅔이닝 동안 2피안타 3사사구 2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지난 16일 키움전에서 4이닝 7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슈퍼투키’ 다운 위용을 과시했던 윤영철은 이날도 위력적인 공을 던지며 LG 타선을 상대했다.

윤영철은 71개의 공을 뿌렸고 직구

(37개), 커브(2개), 슬라이더(20개), 체인지업(12개)을 섞어 던지며 구중을 점점했다. 최고 구속은 140km였다.

출발은 다소 흔들렸다. 1회에만 22개의 공을 던졌다.

1회초 선두타자 서건창에게 안타를 맞은 윤영철은 문성주와 오스틴을 각각 삼진, 우익수 뜬공으로 잡았다. 이어 서건창의 도루를 허용했고 오지환을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2사 1,3루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후속타자 박동원을 땅볼처리 했고 오지환을 포스아웃시키며 위기를 넘겼다.

2회초 1사후 홍창기에게 안타를 내줬으나 포수 주효상이 태그아웃 처리하며 도루

를 저지했고 후속타자 허도환을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닝을 거듭할수록 투구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윤영철은 3회를 단 10개의 공으로 넘겼고, 4회 역시 삼자범퇴로 이닝을 깔끔히 정리했다. 당초 70-75구를 던질 계획이었던 윤영철은 5회 1사후 홍창기와 정주현에게 볼넷 출루를 허용한 뒤 박도규에게 마운드를 넘겨줬다.

한편 KIA는 이날 LG에 2-6으로 역전패했다. 4회말 소크라테스와 황대인의 1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으나 8,9회 LG 김기연과 송찬의에게 연달아 홈런포를 맞으며 대량 실점했다. /조혜원 기자

광주FC 아사니 K리그1 4R MV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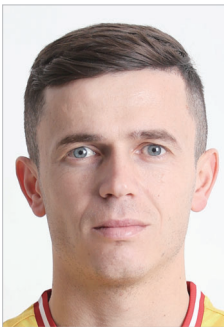
엄지성·안영규 등 베스트11

광주 베스트팀·베스트경기

광주FC 아사니가 하나원큐 K리그1 2023 4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아사니는 지난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2023 4라운드 홈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광주의 5-0 대승을 이끌었다.

이날 선발 출전한 아사니는 전반 8분 두현석이 페널티 아크쪽으로 찰라준 패스를 이어받아 원발로 첫 골을 넣었다. 후반 23분에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인천 수비수를 맞고 떨어진 공을 원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며 추가 골을 넣었다. 또 후반 26분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환상적인 원발 중거리 슈팅으로 쐐기 골을 넣으며 시즌 1호 헤트트릭을 완성시켰다. 이



아사니

날 광주는 아사니의 헤트트릭과 함께 엄지성, 이희균이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며 대승을 거뒀다.

광주와 인천의 이날 경기는 4라운드 베스트 경기에 선정됐고, 광주는 매서운 공격력으로 인천을 압도하며 4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K리그1 4라운드 주간베스트 11에는 아사니를 포함해 루빅손(울산), 주민규(울산·이상 FW), 엄지성(광주), 팔로세비치(서울), 이진현(대전), 세장야(대구·이상 MF), 안영규(광주), 김진혁(대구), 김민덕(대전·이상 DF) 김경민(광주·GK)이 뽑혔다. /조혜원 기자

무안군청 춘계실업검도 단체전 우승

양동관 3단부 개인전 동메달

무안군청이 제27회 춘계 전국실업검도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무안군청은 지난 16~19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기록했다. 금메달은 단체전, 동메달은 올해 입단한 양동관(24)의 3단부 개인전에서 나왔다.

무안군청은 단체전에서 수월시청(16강전)과 인제군청(8강전)을 각각 제압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창원시청을 4-2로 꺾은 무안군청은 결승에서 구미시청을 상대로 팽팽한 접전 끝에 3-1로 승리했다. 지난 2020년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 우승 이후 3년만의 전국 대회 우승이다.

양동관은 32강전에서 이윤진(광명시청)에 1-0, 16강전에서 정영훈(광주북구청)에 판정승을 거뒀다. 8강에서는 전철영(구



무안군청이 지난 16~19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27회 춘계 전국실업검도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미시청)을 상대로 머리치기 2점을 획득했고 준결승에서 황서현(인제군청)에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에 머물렀다.

이광철 무안군청 감독은 “3년만에 최정상을 차지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열심히 훈련해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세한대 볼링 단체전 우승

협회장배 전국선수권 금3

세한대학교 볼링부가 제41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중별볼링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차지하며 창단 첫 단체전 우승을 기록했다.

세한대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상주월드컵볼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대학부 경기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강태영(21)과 김태훈(20)이 2인조 경기에 출전해 총점 2,785점(평균232.1)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5인조 경기에서 박대희(23), 강태영, 김태훈, 김호진(23), 이송빈(22), 송승민(22)이 출전해 합계 6,244점(평균 208.1)을 획득하며 5인조 단체전 1위에 올랐다.

김태훈은 개인종합 1위(합계 5,187점·평균 216.1)를 차지하며 3관왕을, 강태영은 2관왕을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

광주FC ‘만능 미드필더’ 오후성 영입

빠른 스피드·드리블 장점

광주는 21일 대구FC에서 미드필더 오후성(23) 영입을 통해 전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대구 U-18 현풍고 출신인 오후성은 지난 2018시즌 졸업 돼 5년간 대구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프로 무대와 R리그를 오가며 꾸준히 성장 폭을 그려온 오후성은 2021시즌 22경기에 출장, 유망주로서 인정을 받았다.

173cm·64kg의 날렵한 체격을 지닌 오후성은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이 뛰어난 winger다.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패스 능력으로 공격형 미드필더와 새도우 스트라이커까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로 평가받는다.



오후성

또 지난 해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F조 조별예선 5차전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팀 승리에 기여하기도 했다. 광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둔 오후성은 “상대팀으로 마주하는 광주는 항상 결기로운 팀이었다. 지난 시즌 광주가 보여준 경기력과 엄청난 업적 또한 나의 도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팀이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늦게 합류한 만큼 성실한 모습으로 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